

## 2장. 약속의 땅을 떠남(1:1-6)

### I. 오늘의 포인트

1. 약속의 땅에 기근이나 흉년이 임하게 되는 배경을 알아본다.
2.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가게 된 상황과 그 결과를 통하여 텅 비고 희망없는 인생을 보게 된다.
3. 무엇을 근거로 다시 희망의 발걸음을 옮기는 시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II. 본 론

#### A. 가나안 땅(약속의 땅)의 조건: 흉년과 풍년

- 1)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기근(1:1)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 왔을 때 풍년(1:6,22)

- 2)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의 입지 조건을 들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모세의 유언(신명기의 말씀: 신11:8-17)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르다.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풍성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제때 제때 비가 내려주시도록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원할 때 물을 댈수 있는 옥토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만을 바라보는 천두답이기에 전적으로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땅이기에 인간적으로는 불안해도 오히려 그 조건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 것이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밭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댍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설날 그뉘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신11:10-12)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 땅 자체가 옥토라서 풍성한 산물을 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풍성한 산물을 내는 땅이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땅이다.**

- 3) 약속의 땅에 흉년과 풍년이 들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기후 조건이 아니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 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신11:17)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낫이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신28:20, 23, 24)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칠 따라 내려 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신8:13,14)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 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신28:9, 12a)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하고 배역한 때에 바로 가장 큰 기근이 내렸다. 3년동안 아합왕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를 기상상태가 보여주고 있다.(열왕기상 17:1; 18:1, 17,18)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열왕기상 17:1)

## B. 엘리멜렉 집안의 모압 이주 이야기(1:1-5)

- 1) 사사시대의 영적 분위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
- 2) 엘리멜렉(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이라는 가장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내린 결정  
사사시대의 각자 소견에 좋을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풍조 그대로인 엘리멜렉의 모습  
두 아들이 모두 모압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임
- 3) 엘리멜렉은 기근의 영적 의미를 현실적인 문제로만 보았던 근본적 문제점
- 4) 기근의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 5) 기근이 그치고 다시 가을비와 봄비를 허락하심으로 회복시키시며 양식의 공급을 약속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없었을까?

### C. 세 과부만 남은 희망 없는 상태로 투영된 이스라엘의 모습

1) 모압에서 10년쯤 사는 동안 그 집안의 형편이 완전히 파탄이 난 모습으로 떨어짐(1:5)

어느 시기 만큼을 살았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2) 이 집안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모습

3) 자신이 텅빈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자신의 상황묘사

‘나는 가득 찬 채로 이 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1:21a)

4)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처음보다 더욱 나빠진 상태의 삶

사사시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대로 행하려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을 연상케 됨!

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레위인과 첩이야기.

\* 레위인이 기브아의 베냐민 자손들의 마을에서 집단 성폭행으로 죽은 첩을 12토막으로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각지로 보냄

\* 이 사건을 계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를 요구하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지파 사람들이라고 보호하자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간에 전쟁이 일어남

\*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가 절문되게 생기자 다시 600명의 남은 베냐민 사람을 위하여 신부를 얻어주는 과정에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죽임

5) 이 모든 일의 진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나오미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1:20)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1:21)

### D. 다시 희망의 시작

1) 나오미는 그런 희망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하였나?

자기 고향에 풍년이 들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서 백성을 돌보신 것이다 라고 표현됨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1:6)

2)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나오미

3) ‘기근’을 주셨던 분이 이제 ‘풍년’을 주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돌보심으로

풍년을 주시고 계셨다. 더욱 큰 은혜였던 것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는 사사시대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큰 은혜(헤세드)를 주심으로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양식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신다.

- 4) 굶주림을 피해 모압으로 가서 오히려 의지할 남편이나 아들없이 과부 둘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다시 굶주리에 허덕일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태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결심을 하는 나오미의 마음
- 5)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삶의 환경적 조건**을 가지게 된 나오미의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천수답 환경이 되었다. 삶의 환경 자체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은 열악한데 하나님이 돌봐 주시며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며 돌봐 주시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빈털터리지만 그 채워주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새로운 삶의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

### III. 적 용

1.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실적 문제에 대한 피상적 진단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2.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진단함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
3. 이미 내린 잘못된 선택으로 상황이 영적으로 더욱 악화되어 나갈 때 우리는 어디서 멈추어서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인가?
4. 내 삶의 돌이킴의 결단의 근본적인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 삶의 조건들이 천수답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세상것을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출발이 될수 있다.